

간편식 고등어구이는 노르웨이산... 왜?

-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국내 간편식 시장 폭발적 성장
- 연어, 송어 등 고급식재료 활용한 프리미엄 간편식 시장 성장세도 '주목'



2016년 8월 22일 -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편의점 업계는 백종원 도시락(CU), 김혜자 도시락(GS25), 헤리 도시락(세븐일레븐) 등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간편식 시장의 성장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메뉴도 다양화되었다. 기존 도시락들이 제육볶음, 불고기, 돈가스 등 단품 위주의 메뉴였다면 최근에는 오메가3와 DHA가 풍부한 영양가 높은 생선인 고등어를 활용한 메뉴부터 찌개와 국이 제공되는 메뉴까지 출시되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고등어구이와 고등어조림 등 기존 도시락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생선메뉴는 편의점뿐 아니라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의 타 유통채널에서 구이식의 형태로 출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마트의 경우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는 간편식 노르웨이산 고등어구이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손질된 노르웨이 고등어살의 날개 포장 제품은 7월 하순(7/28~8/10) 기준 전년동기대비 82.8%의 매출 상승률을 보일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소셜커머스 위메프에서 판매되고 있는 날개 포장된 노르웨이 고등어의 경우, 7월 하순(6/28~7/22) 기준 전년동기대비 725%의 높은 매출 상승률을 보이며 간편식 제품의 높은 인기를 실감 하게 했다.

[자료 문의]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 홍보 담당

함샤우트 조소은 과장 02-6020-0555 / 010-9413-2466/ jse@hahmshout.com

함샤우트 나진수 대리 02-6020-0509 / 010-6320-2649/ njs@hahmshout.com

이들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편식 고등어구이의 경우 대부분 노르웨이산인데 이는 노르웨이 고등어의 촉촉하고 고소한 맛이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노르웨이 고등어는 차고 깨끗한 바다에서 제철인 9~10월에 어획된 후 선상에서 급속 냉동된다. 이러한 유통과정으로 지방이 풍부하고 풍부한 육즙이 보존되기 때문에 순살 고등어 형태인 간편식 제품으로 가공된 이후에도 부드러운 식감을 살릴 수 있다. 국내산 고등어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르웨이 고등어가 품질 좋은 대체재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고등어 공급원을 한 것도 노르웨이 고등어가 간편식 제품으로 사용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도시락과 간편 고등어구이 등의 인기는 가성비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며 “이제 소비자들은 가성비 뿐 아니라 맛과 품질까지 원하는 쪽으로 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어, 송어, 장어 등의 고급 식재료를 활용한 프리미엄 간편식 시장의 성장세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orwegian Seafood Council, NSC) 소개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는 노르웨이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마케팅 조직이다. 주요 활동분야는 시장분석, 커뮤니케이션, 위기관리이며 유통채널이나 레스토랑, 온라인 분야 등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의 본사는 노르웨이 트롬쇠에 위치하고 있으며, 12개의 해외지사를 두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norgeseafood>)나 홈페이지(<http://www.norge.co.kr>), 모바일 페이지(<http://www.norgemobil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페이지는 첨부된 QR코드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다.



[자료 문의]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 홍보 담당

함샤우트 조소은 과장 02-6020-0555 / 010-9413-2466/ jse@hahmshout.com

함샤우트 나진수 대리 02-6020-0509 / 010-6320-2649/ njs@hahmshout.com